이름뿐인 고령자

(名ばかり高齢者)

▪ Analyst **나미선** misun.na@daishin.com

2025년 대한민국, 문득 20년 전 이웃 나라 일본의 모습이 궁금해졌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 사회의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 그 해답의 실마리를 어쩌면 20년 전 우리보다 먼저 유사한 고민과 변화를 겪었던 일본 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도쿄 타임머신]은 2000년대 일본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유행과 이슈들을 따라 시간 여행을 떠납니다

당시 일본 사람들은 뭘 좋아하고, 뭘 궁금해하고, 어떤 고민을 안고 살았는지…
그 시절의 생생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갑니다

가볍게 즐기는 시간 여행 속에 문득 깨닫는 투자 아이디어 한 조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열 번째 주제는 존재하지만 잊혀진 사람들, '이름뿐인 고령자'가 던지는 초고령사회의 질문입니다!

#시간여행 #초고령사회 #소재불명 #이름뿐인 #고령자 #名ばかり高齢者 (2010년 日 올해의 유행어 대상 후보)

Daishin 증권

2010년, 일본을 뒤흔든 존재의 공백

행정 서류에만 존재하는 100세 노인

2010년 일본 유행어 대상 후보에까지 올랐던 '이름뿐인 고령자(名ばかり高齢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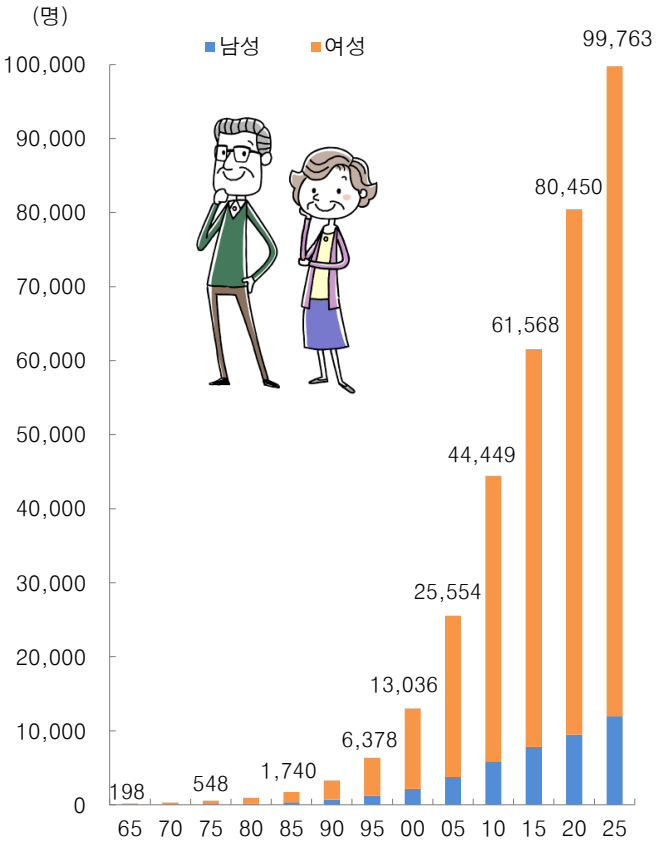
이 낯선 단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일본의 초고령사회 이면에 드리워진 섬뜩한 그림자였습니다~

'이름뿐인 고령자'란 주민등록상으로는 생존해 있으나 실제 소재를 알 수 없는 고령자를 뜻하는데요

2010년 7월, 도쿄도 스기나미구 직원이 서류상 111세 남성의 집을 방문하려 했으나 가족이 이를 거부합니다. 경찰 수색 결과, 그는 이미 30년 전에 사망했고 자택에서 백골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 지자체는 100세 이상 고령자 전수 조사에 돌입하게 되죠~

日 100세 이상 고령자 수 추이



도쿄도지사가 100세 고령자에게 표창 수여

100세 생일을 맞은 고령자가 환하게 웃고 있다

자료: 후생노동성, Google 이미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연금 사기인가? 가족 윤리 붕괴인가?

가족이 연금을 노리고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

전수 조사 결과, 수백명의 고령자가 생존이 확인되지 않거나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게다가 소재 불명 고령자 중 상당수는 독거 노인이 아니라 주민 등록상으로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것이었고, 이들의 명의로 수십년 간 연금을 부정 수령한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가족의 생계 부담이 국가 공적 자금 사기라는 범죄로 이어진 경제적 비극이었는데요~

결국 부정 수령에 가담한 유족들은 사망 사실을 숨기고 연금을 받은 혐의로 사기죄를 적용 받았으며, 시신을 방치하거나 은닉한 혐의로 사체유기죄까지 적용 받아 징역형(실형)이 선고되었죠~

이 사건은 빈곤과 도덕적 해이가 결합해 국가의 행정 시스템과 가족 윤리를 동시에 붕괴시킨 초고령사회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였습니다~

日 연금 수첩

자료: Google 이미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2000년대 일본, 행정 효율화와 고용 불안정의 치명적 결합

그럼 어쩌다가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 비극의 뿌리는 행정 간소화와 경제적 모순의 결합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은 연금 지급 절차를 효율화했습니다. 과거엔 매년 생존 확인서(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후 주민등록 데이터와 자동 연동되면서 신고 의무가 사라지게 되죠! 이는 막대한 행정 비용을 줄이고 고령층의 번거로움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사망 신고만 없으면 연금이 계속 지급되는 구조를 만들었고, 결국 수십 년간 쌓인 행정 기록의 오류를 방치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게다가 당시 일본의 법정 정년은 60세였는데, 연금 수령 연령이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었기 때문에 5년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년 후 생계가 막막한 가족들은 고령자의 연금을 끊지 않으려는 유혹에 쉽게 노출된 것이었죠~

☞ 이 비극은 행정 편의주의가 가족 관계 단절이라는 사회적 현실과 만나 생활 빈곤이라는 불씨를 당기면서 발생한 초고령사회의 시스템적 비극 이였던 겁니다~

자료: AI 생성 이미지 재가공,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日 정부는 이 사건에 어떻게 대응 했을까?

日 정부의 행정 시스템 대개혁

이 사건으로 국가 사회 보장 시스템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신뢰는 크게 흔들렸고, 이에 일본 정부는 행정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합니다!

☞ **주민 등록 정비**: 전국적으로 소재 불명 고령자의 주민표를 직권 말소해 행정 기록과 실제 간의 괴리 해소

☞ **연금 지급 시스템 개혁**: 일정 연령 이상 고령자와 해외 거주자에게 정기적인 현황신고서 제출을 다시 의무화하고 미제출 시에는 연금 지급 정지

☞ **민관 협력 안전망 구축**: 편의점, 우체국, 전력·가스회사 등의 민간 사업자가 일상 업무 수행 중에 우편물 누적/조명 미변화/사용량 급감 등 노인 가구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IoT와 통신기술을 활용해 혼자 사는 고령자에게 정기 안부 확인 메시지를 발송하고, 무응답 시 자동으로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비상 알림이 전달되는 미마모리(見守り, 돌봄) 통신망을 도입했습니다!

자료: AI 생성 이미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위기(危機) 속에서 기회(機會)를 찾은 산업

日 이름뿐인 고령자 위기에서 기회를 본 산업들

행정 공백과 가족 단절이 만든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본은 새로운 산업에 투자했습니다!!

☞ **스마트 돌봄 테크**: 고독사, 소재 불명, 치매 노인의 배회 등을 막기 위한 IoT 센서, AI 모니터링, GPS 기반 배회 감지 등 비접촉형 안부 확인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고령자 안부 확인 서비스 시장: 2020년 약 262억엔 → 2030년 약 381억엔 전망

☞ **시니어 HR 서비스**: 정년 후 일자리를 잃은 고령자에게 맞춤형 재고용과 경력 전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 등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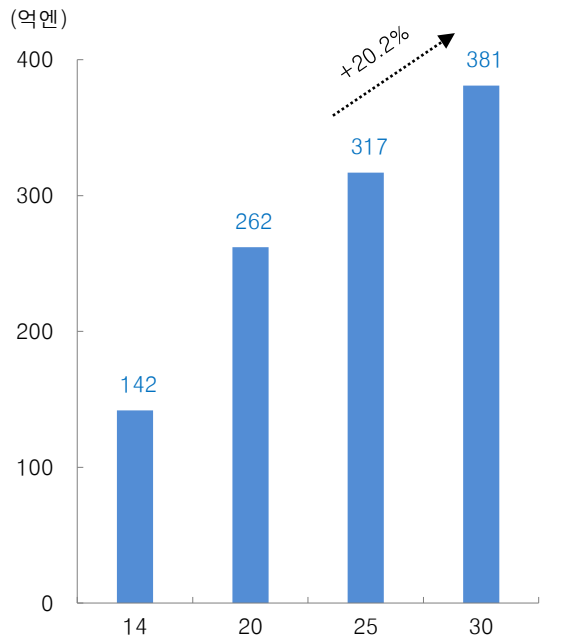
日 시니어 인재 서비스 시장 규모(2021년): 약 404억엔

☞ **비보험 생활지원 서비스**: 일본의 공적 장기요양보험(개호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 즉 일상 생활의 편의를 위한 유료 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日 5대 생활 지원 서비스 시장 규모(2024년도): 약 6,158억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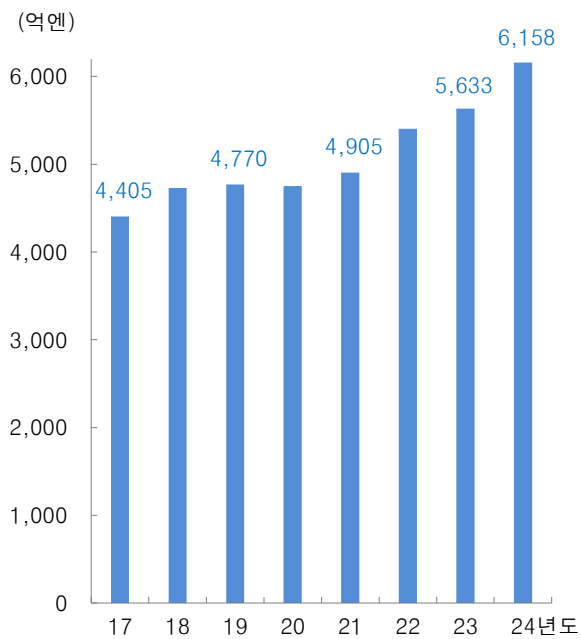
⇒ 日 기업들은 위기를 기술과 돌봄 산업의 성장 기회로 전환!!

日 고령자 안부 확인 서비스 시장 규모



日 5대 생활지원 서비스 시장 규모

≪5대 생활지원: 청소, 가사, 홈 시큐리티, 안부 확인, 렌탈 서비스≫



자료: SEED PLANING, 야노경제연구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韓 '이름뿐인 고령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일본보다 심각한 고령자 빈곤과 소득 공백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빠르고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은퇴 연령 간의 간극은 더 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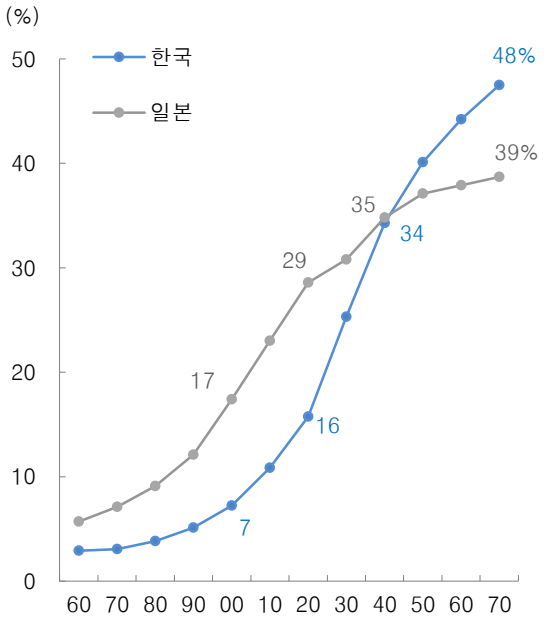
☞ **소득 공백 심화**: 법정 정년(60세)은 있으나, 실제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49세~51세(통계청). 반면,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1969년생 이후 65세로 단계적 상향되어, 실제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기까지 15년의 소득 공백 발생

☞ **OECD 최악의 빈곤율**: 긴 소득 공백과 낮은 공적 연금 수령액이 결합되면서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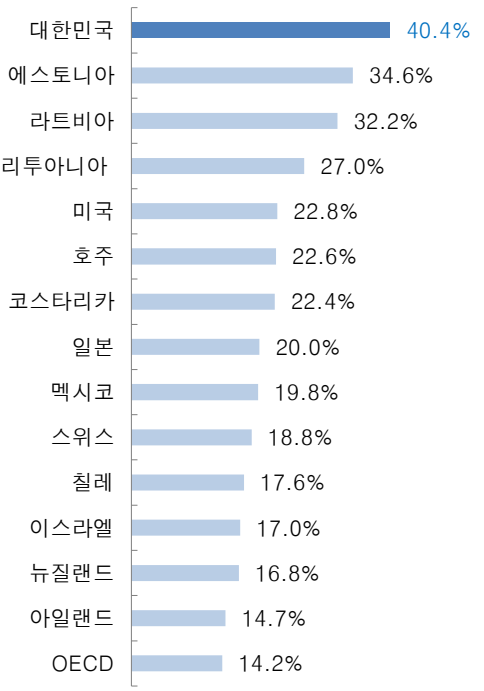
이런 조건에서는 일본의 '이름뿐인 고령자' 사건이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언제든 은둔형 고독사 형태로 재현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행정적 허점을 기술로 보완하고, 고령층을 사회의 경제 주체로 다시 세우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한일 고령화율 추계



OECD 노인층 소득 빈곤율 순위 (2023)



자료: 통계청, 일본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 OECD, Google 이미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이름뿐인 고령자'에서 깨닫는 투자 아이디어 한 조각

- 초고령사회가 드러낸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존재의 공백' 입니다. 이 공백을 메우는 것은 결국 기술과 연결입니다. 돈과 시스템의 부재로 생긴 문제를 해결하고, 존재의 공백을 연결의 가치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초고령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 **돌봄 테크**: 복지 이력, 생활 패턴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고독사/빈곤 등의 고위험군을 능동적으로 선별하고, 지자체와 민간이 즉각 대응하는 AI·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복지 행정 플랫폼
- **액티브 시니어 HR 테크**: 소득 절벽 문제를 해소하고 고령층의 숙련 기술을 재활용해 실버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시니어 맞춤형 HR·재교육 플랫폼
- **시니어 리빙 솔루션**: 건강 관리, 프리미엄 생활지원, 커뮤니티 기능을 결합한 통합형 시니어 주거 모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의료·돌봄·여가·사회적 교류가 하나의 서비스 체계로 운영되는 복합형 주거 인프라 입니다

자료: AI 생성 이미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도쿄 타임머신] 시리즈 발간 내역

순번	제목	발간일
1	타마짱 vs. 푸바오	2025. 07. 04
2	단카이 세대 은퇴 투자	2025. 07. 18
3	'힐즈족'이 바꾼 롯폰기 클라쓰	2025. 08. 01
4	격차 사회(格差社會)	2025. 08. 15
5	한류 경제의 서막, 겨울연가	2025. 08. 29
6	후기고령자(後期高齢者)	2025. 09. 12
7	결혼 활동(婚活)	2025. 09. 26
8	초식남 vs. 육식녀	2025. 10. 17
9	둔감력(鈍感力)	2025. 10. 31
10	이름뿐인 고령자(名ばかり高齢者)	2025. 11. 14

Compliance Notice

-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위 언급된 종목을 제외한 동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나미선)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